

自然保護運動의 擴充

～果敢한 施策化 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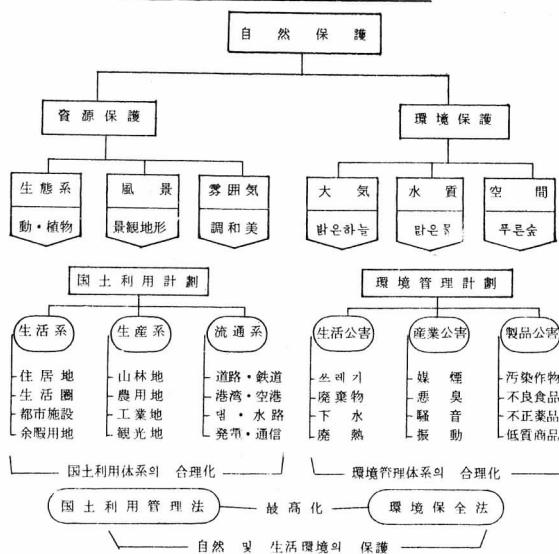
安元泰（國立公園協會事務局長）

「内実과 人間性涵養의 運動」

自然保護運動이 汎国民의이고 組織의으로 变
지고 있는 것은 歷史上 劃期的인 일이며 成長為
主의 國家發展計劃이 國土保全, 環境管理라는 內
實과 人間性 함양이란 높은 次元으로 昇華되어
우리 世代의 自信과 眈持를 나타내주는 반갑고 보
람찬 일로 發展되고 있다. 모처럼 变져나는 自
然保護運動이 理解, 參与, 管理의 단계에서 조
금이라도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누
구나의 학결 같은 慈願이다.

全国 어디서나 쓰레기를 줍고, 登山路에 쓰레기통이 서는가 싶더니 自然保護運動을 곧 쓰레기 줍기만으로 아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自然을 保護하기 위해 登山路를 폐쇄해버리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찾을수 있도록 高山峻嶺의 登山路를 크게 넓힌다는 말도 있으니 뭔지 모르게 大自然, 國土의 基本을 保護한다는 運動치고는 枝葉 末短 변두리만 맴도는 듯하여 아쉬운 감이 가시지 않는다.

自然保護体系의 概念図



自然保护는 自然 및 自然資源의 保全과 같은 뜻이며 이는 国土管理와 環境管理의 두개部門을 통하여 수해되고 과리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가운데 먼저 國土管理部門은 自然保護對象
가운데 國土資源의 保護管理를 담당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는 動物, 植物, 鳥類, 昆虫, 林相,
群落, 植生등의 自然生態系와 自然資源이 造成
한 風景과 調和感, 自然現象의 變化, 地形地勢
등 우리에게 주는 情緒霧靄氣로써 이루어진 資
源性을 保護·管理하는 것으로 國土管理의 側面
에서는 國土의 開發·利用·管理의 단계중 가
장높은 次元인 國土利用構造, 國土利用體系의 設
定을 통해서만 기틀이 잡힐 수 있다.

国土利用体系 가운데 生活系空間인 住居地, 生活圈 都市, 余暇用地, 各種都市施設用地는 所得增大, 生活水準의 向上, 都市化의 進展등으로 보다 넓고 패적하고 높은 수준에서 確保되어야 하므로 国土의 形質變更를 가져오게 되어 国土自然의 保護와 緊密적인 相関性을 지닌다.

生産系空間인 山林地, 農業用地, 工業用地,
觀光地등은 높은 所得, 豐饒한 生活水準의 保障
을 위하여 生産性의 向上에도 不拘하고 그 絶對
所要面積이 크게 增大하므로써 보다 대 규모
로 自然에 變化를 가져오는 것으로 產業用地의
代表的 例가 되고있는 工業用地의 경우 바다를
埋立하고 산을 깎아야 하며 觀光地의 경우에도
景觀地域의 어디엔가 變形을 가져오기 쉽다. 産
業用地도 國家發展計劃의 成就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어디에 어떤 규모와 어찌
한 방법으로 할 것이나는 곤 國土資源, 自然
保護의 問題이며 實제에서는 國土利用計劃에 의
해 결정된다.

流通系空間인 道路, 鉄道, 港湾, 空港등 輸送基盤은 그 路線의 選定, 立地의 決定이 灣하리와 들판, 바다와 海岸, 都市의 環境綠地와 耕作地에 큰 變化를 가져오며 河川, 噴, 水路등 用 水基盤도 國土, 곧 自然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버리고 發電所 配電施設, 通信施設등도 그 型式과 規模 立地에 따라서는 同一한 要因이 될 수 있다.

自然保護의 政策手段인 國土保全은 이와같은 生活系, 生產系, 流通系로 이루어진 國土利用의 要素를 充足하려는 国家施策의合理화가 主된 관건이 되며 이는 國土의 条件과 未来의 与件, 部門別國土利用의 需給; 展望등을 전문적으로 다룬 國土利用管理計劃의合理화로서만 成就될 수 있다. 國土利用管理計劃이 未熟하거나 不合理 했을 경우 國土利用의 需要가 지닌 성격으로보아 國土資源, 自然資源은 부당하게 대규모로 害를 입게 된다.

國土保全이란 側面에서 볼 때 自然保護는 政府事業의 適正化, 合理화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迅速, 経費節減, 大單位化가 追求되는 国際의 行政傾向과 함께 自然保護運動이 이를 경제하고 깊이 檢討하려는 民間運動으로 展開되는 世界的な 理由도 이러한데 있는 것이다.

「自然保護와 環境管理」

自然保護의 또 다른 部門인 環境管理는 밝은 하늘, (Bright Sunshine) 밝은 물, (Clean water, Blue Sea) 푸른 숲 (Rich green)을 간직하고 衣·食·住의 安全을 지키는 것이며 쓰레기, 폐기물 등 生活公害, 煤煙, 騭音 등 產業公害, 不良食品, 不定医藥品 등 製品公害 등이 規制管理의 対象이 된다.

따라서 環境管理는 国民의 保健, 衛生, 福祉와 밀접한 関係에 있으므로 그 管理는 国民保健管理의 体系로서 定着되어야 한다.

흔히 들 環境管理는 自然保護와 別途의 体系에서 理解하려는 傾向이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 工場周辺의 農作物, 果樹가 枯死하고 生活用水가 汚染되고 鳥類가 날아들지 않고하는 自然資源, 生態系의 破壞가 모두 生活公害 產業公害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漢江이란 大自然이 죽어가는 것도, 一部 海水浴場의 바다가 벼림받는 것도 이 環境管理와 関係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 또한 自然保護体系의 重要한 部門이다.

「檢討되어야 할 方案들」

自然保護運動은 国民運動의 하나로 뛰어한 契機와 강력한 動機가 있어야 하며 全国民의 參与가 있어야 成功을 거둘수있음은 当然한데 모처럼 번진 自然保護運動의 成果를 極大化하기위

해 다음과 같은 方案들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民間機構인 自然保護協議會에各界著名人士를 비롯 動植物, 鳥類등의 專門家가 細部部分野別로 參与해야하며 國土利用에 관한 專門家가 반드시 參加해야 한다. 現在와 같이 鳥類 昆虫植物의 細部專門家만 있고 막상 國土利用 國土計劃의 專門家가 漏落된 狀態는 미생이 木工 벽돌공 콘크리트공만 가뜩 모아놓고 막상 設計士나 建築士는 없는 채 積짓는 論議를 하는 것과 같으며 어딘지 잘못알고 시작한 構成으로 誤解될 두려움이 있다.

둘째 効果的인 自然保護運動의 政策計劃은 國土利用管理와 環境衛生管理의 2개部門으로 나누어 각각 獨립된 機關이 이를担当하여 강력한 施策을 推進해 나가는 것이 合理的이다. 國土利用計劃法, 公害防止法등에 明示된 國土管理, 環境管理에 관한 事項들은 이를 準則化하는 것도 必要하다.

셋째 自然保護를 위한 团束은 보다 강력하고 설득력있게 펴나가야하며 外形의인 破壞뿐만 아니라 自然資源이 주는 價值을 韓 손한 경우에도 엄한 团束이 필요하다.

넷째 中央은 물론 末端行政区域까지 조치된 地域別 自然保護協議會는 自然保護를 위한 国民運動의 推進체로서만이 아니라 自然保護와 純粹관련되는 都市計劃, 產業立地計劃等 國土利用에 관한 計劃立案의 協議體로서의 機能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自然保護運動은 또한 国際化되어야 한다. 自然保護運動이 地域이나 国家를 초월하여 汎地球의in 意識에서 推進되고 있는 趨勢를 감안, 國際自然保存聯盟 (ICUN)에 加入하고 1백여개국이 參加하여 2년마다 開催되는 國際大会에 參与, 自然保護에 관한 情報·技術을 교환하고 資金을 支援받을 수도 있다. 현재 国내에서는 韓國國立公園協會와 韓國自然保存協會가 會員으로 加入하고 있으나 政府가 加入하지 않아 大会開催의 資格을 얻지 못하고 있다.

「政府의 率先示範」

自然保護는 国民運動으로 推進되어야 하나 都市道路 工業用地 港灣 鉄道등 自然의 形質變更에 가장 많은 関聯과 가장 큰 힘을 가진 政府가率先示範해야 한다. 한 사람이 나무가지를 꺾

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自然破損이 긴 하지 만 高速道路의 路線選定, 大單位工業團地의造成, 綠地의 宅地化, 沿岸 湖水의 埋立, 都市計劃의 變更등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도 自然保護의 基準에서 慎重히 檢討되어야 할 問題다.

이러한 觀點에서 몇가지 自然保護를 위한 政府의 強力한 決意와 意志의 表現이 있었으면 한다.

먼저 國立公園開發計劃의 一部도 自然保護의側面에서 再檢討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代表的 自然風景地인 國立公園의保護는 自然保護의 核心이라 할 수 있다. 一部國立公園의 경우 不過 20分~30分의 距離에 邑級以上의 都市가 있는데도 公園区域内部 그것도 景觀美가 뛰어난 地域에 旅館, 商街등 集團施設地区를 設置하는 傾向부터 再考되어야 한다. 景觀, 地形 및 調和美와 雾團氣가 주는 情緒에 큰 鮮明을 끼치고 있고 隣接地方都市의 發展마저 沮害하고 있기 때문이다. 井邑 東草 求礼 青松등 一部都市에서는 管內 國立公園의 集團施設地区를 宿泊地区化하여 貴한 손님이 오면 모시는 곳으로 定하고 있어 막상 都市内部의 宿泊서비스等은 不振할 경우조차 많다.

集團施設地区에 호텔 商街등을 지으면서 言必稱 「周圍景觀에 調和되는 建設」이라지만 없는 것에 比하면 얼마나 많은 自然美를 壞치는 것이며 集團施設地区設置의 目的이 都市에서 멀기 때문에 都市의 施設을 한데 모아 便宜를 주자는 것임을 考慮할 때 20~30分만가면 完成된 都市가 있는데도 좁은 公園人口에 施設을 해두고 북세질을 칠 까닭도 없다. 마땅이 隣接都市와의 距離가 100 KM 또는 2時間以上인 公園人口에 限하여 集團施設地区를 設置하고 그밖에는 簡易商店으로서의 休憩所設置등에 그쳐야 한다.

다음으로 当局이 計劃中인 것으로 報道한 몇개의 國立公園을 連結하는 地域開發計劃이다. 國立公園을 利用하여 広域의 地域開發을 目標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으나 特히 이들 公園의 縱走陵線을 있는 登山路를 2M의 幅으로 拡張하고 現場의 窪과 나무와 돌로 길바닥을 다진다는 計劃은 다시 생각해 봄야 한다. 國立公園의 山峰을 連結하는 縱走陵線은 自然保護地区로 指定된 곳이 많고 길을 덮은 풀잎 나뭇잎을 헤쳐가며 걷는에서 資源의 価値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더욱 그地域은 우리나라 唯一의 大山岳地帶이며

高原地帶이다. 「히 말라야」에 오르는 것은 그陥路를 危險心과 挑戰의 姿勢로 征服하는데에서 얘기꺼리가 되는 것이지 安全하게 「케불카」나 広幅의 道路를 만들어 놓았다면 話題価値은 半減될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散策하듯 손쉽게 산에 가려는 사람은 뒷동산이나 南山에 오르게 하고相當한 準備와 危險心, 挑戰의 精神으로 길을 찾아가며 때로는 무릎도 긁히면서 走破하고 喜悦을 맛볼수 있는 縱走陵線을 國立公園에서만 이라도 간직하는 것은 그 計劃立案者들이 들여이는 우리나라青少年의 굳센 訓鍛을 위해 必要하다. 하물며 우리나라最長 最適의 路線인데야 말할것도 없다.

한편 環境保護를 위해서도 政府는 솔선수범하는 意志를 보여야한다.

60年代에 外國인이 오면 서울은 空氣가 맑다고 자랑했다. 70年代에는 外國에서 이틀입던 와이셔츠를 하루입기가 어려워졌다. 煤煙의 主要因인 自動車와 煉炭에 대한 対策이 시급하다. 自動車의 生產過程에서 철저한 設備를 하게 하여 燃料의 質도 높이고 煤煙車輛은 조속히 代替해야 한다. 煉炭의 경우도 有害gas, 煤煙의 문제를 감안, 大都市는 油類使用으로 代替하고 하루빨리 地域煖房을 導入하고 太陽熱이 용등 새로운 에너지源의 利用을 확대해야 한다.

公害工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代表의인 公害工場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빨래를 널수가 없고 여름엔 방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가 하면 주민들이 눈병에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公害工場은 과감히 移転을 시켜야 한다. 国民学生을이 한더위에도 유리 창을 닫고 공부를 해야하고 1個邑의 거의가 被害地域인데도 工場正門에는 自然保護, 環境保護의 懸垂幕이나 看板이 세워져 있다면 이는 더 없는 優れ는 것이다. 하물며 그 工場이 学校法人과 関係되었다면 이는相當히 非教育의이다.

물론 상당한 投資問題가 따르기는 하나 自然保護나 環境保護運動은 일개 企業의 問題가 아니라 全國民, 全人類의 問題이며 돈이 좀 들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간직 할 것은 간직하며 잘 살아가자는 運動이므로 이만한 것은 감수해 나가야 한다.

自然保護運動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은 果敢한 意志의 表現이 있어야만 단단한 바탕을 굳힐 수 있음을 새삼 強調한다.